

# 광주시 내년 5조877억 예산안 시의회 제출

### 선심성·일회성 예산 삭감... 일자리·복지분야 집중 투자 광주형일자리 590억·도시재생 478억·수영대회 641억

광주시의 5조877억원에 달하는 2019년 예산을 일자리와 복지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해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 투자, 성장으로 이어지는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8일 광주시의회에서 2019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2019년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을 밝혔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총규모는 2018년 당초 예산보다 5738억원이 증가한 5조877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5조원을 돌파했다. 사상 최초로 국비 2조원 시대를 열었다. 각종 선심성, 일회성, 중복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과, 지방채 대폭 축소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일자리, 복지, 광주다움의 회복, 안전·환경,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을 6대 분야로 선정해 중점투자할 방침이다. '일자리 분야'로 내년 일자리 4만개 창출을 목표로 올해보다 1810억원(27.6%) 증가한 8357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사업'에 투자할 590억원과 함께 주력산업 육성과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에어가전 혁신 지원, 중소기업 기술 및 제작지원 등 혁신성장에도 2313억원의 국

비와 시비를 투입한다. '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2412억원(13.6%) 증가한 2조 108억원을 편성해 포용사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갈 방침이다.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발굴하고 브랜드화해 경쟁력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광주다움의 회복'에도 역점을 뒀다. 올해 도시재생 뉴딜 공모에 선정된 광주역, 전남대 주변, 농성동, 동명동 등 쇠퇴한 지역들을 새로운 랜드마크로 변화시킬 도시재생사업에 478억원을 배정했다. 광주송정역을 광주다운 관문으로 조성하는데 22억원을 투입한다. '안전·환경 분야'에 올해보다 537억원(14%) 증가한 4351억원을 편성했다. 2030년까지 초미세먼지 21% 감축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한 3000만그루 나무심기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 타결하라”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28일 오전 본회의 시작에 앞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투자협상 타결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청년일자리는 구직부터, 채용, 근속, 창업까지 체계화해 지원한다. 구직단계의 대학교 졸업반인 청년에게 구직활동 교통비를 월 6만원씩 5개월간 지원하고,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50만원씩 6개월로 확대하며 안정적인 취업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과 연계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일 경험드림 사업의 참여자에게 월 132만원씩 6개월간 총 792만원의 급여를 지급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축산육성기금 200억 지원 전남도, 연리 1% 저리 융자

전남도는 28일 "친환경 축산 육성과 지역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녹색축산 육성기금 200억원을 연리 1%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19일까지 사업 희망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융자사업 지원 대상은 친환경 축산물 및 식품 안전관리기준(해설·HACCP) 인증 농가 등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와 친환경축산물 가공·유통업체, 가맹점 입점자 또는 판매장 개설자 등이다. 신규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사업 완료 후 1년 6개월 이내에 친환경축산물 및 HACCP 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해당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시군 축산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와 사업비는 전남도 녹색축산 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한다. 시설자금의 경우 농업인·법인인 20억원, 축산물 유통업체·판매장 개설은 30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운영자금은 농업인·법인 2억원, 축산물 유통업체·축산기술개발업자 3억원 이내이다. 상환 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한편 전남도는 친환경 축산 확대 및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녹색축산 육성기금 895억원을 조성했다. 지금까지 301농가에 652억 원을 융자 지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시의회 전문위원 응모자 “허술한 면접, 들러리 섰다”

시장 캠프 인사 1순위 선정 논란 커져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개방형 4급 상당) 공모에 이용섭 광주시장의 지방선거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사가 1순위 후보로 선정된 것과 관련, 다른 응모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문성 없는 선거 캠프 인사가 1순위 후보로 선정된데다 일부 응모자들이 “면접이 허술하게 진행됐다”고 주장을 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에 공모에 참여했던 A씨는 “이번 공모는 사실상 내정자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면접 등의 선정 과정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면서 “사실상 1순위 선정자를 제외한 다른 공모자들은 들러리를 선 것”이라고 28일 주장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공모에 모두 8명이 서류를 접수했는데 이용섭 광주시장 선거 캠프 인사가 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말썽을 빚었다.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보좌해야 할 전문위원에 ‘시장 사람’이 들어서면 제대로 된 의회의 감시 기능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이후 5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으며, A씨에 따르면 이 면접 과정이 허술하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 14일 진행된 면접과정에 면접위원

6명의 질문은 ‘자기 소개 해봐라’ ‘직원을 관리하는 어떻게 하느냐’ ‘현재 광주시의 환경복지 문제가 뭐냐’ ‘결코 할 말은 있느냐’ 등의 평이한 질문이 전부였고 의회 전문위원에 걸맞은 전문성을 따져보는 면접은 아니었다”면서 “결론적으로 서류 접수 과정에 논란을 빚은 인사가 1순위로 선정되는 것을 보고, 다른 공모자들은 이 인사가 선정되는 것을 돕는 도우미 역할만 했다”고 항의했다. 광주시의회도 이번 공모 결과를 놓고 반발하고 있다. 시의원들은 “광주시가 선정한 전문위원 1·2순위 후보들은 전혀 환경 분야 경력과 전문성이 없다”며 “시장의 선거 캠프 인사는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의회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전문위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입법과 예산·결산 심의를 조연하고, 광주시의 예산·결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의회 운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5860만~873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환경복지위원회 박미정 위원장은 “시장 캠프 인사가 시장을 감시해야 할 의회에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장병완 국회의원 남구서 정책간담회 개최

김병내 남구청장과 초당적 협력  
민주평화당 장병완(광주 동구남구갑·사진) 국회의원이 남구청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내 남구청장과 초당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다. 장병완 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남구청 상황실에서 김병내 남구청장을 비롯한 실·국장, 박용화·하주아 남구의원 등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민선 7기 남구의 주요 정책 보고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논의된 주요 현안사업은 ▲장애인전용 체육관 조성 ▲남구 4차산업혁명 체험센터 건립 ▲광주수영진흥센터 건립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가

칭) 유치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유치 ▲도시철도 2호선 연장 개설 ▲가로변 전주 지중화 사업 ▲효천 생활체육관 건립 ▲영산강 하천 축구장 조성 사업 ▲광주향교 유림회관 신축 사업 등이다. 장 의원은 주요 현안 가운데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먼저 접근하고, 관계기관 및 광주시 등과 협의가 필요한 사업들은 세부계획 등을 수정·보완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 의원은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서로의 역량을 더욱 더 결집하고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상시 소통구조를 갖기로 했다”며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일에는 당의 구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시 산하기관장 기본급 적정성 평가해야”

김점기 시의원 주장  
광주시의회 김점기(민주·남구 2) 의원은 28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시 산하기관 혁신 TF에서는 기관장 기본급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7년 기준 기본급은 조직 규모 및 구성, 기관 역량, 대인 업무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할 수 없다”며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게 따르면 테크노파크원장 기본급이 1억 2051만원으로 가장 많고, 광주전남연구원장 1억

1738만원, 한국학호남진흥원장 9600만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9151만원, 문화재단 이사장 8616만원, 도시공사 사장 8574만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8200만원,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8178만원, 환경공단 이사장 6845만원 등이다. 김 의원은 “시는 올해 10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 외부 위원 등 18명으로 혁신 TF를 구성했으나, 10월 17일 개최하기로 한 회의를 연기하고 아직 개최하지 않았다”며 “조속히 TF에서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Asia Culture International Photo Contest  
Prize Exhibition  
www.asiaphoto.kr

# 아시아문화 국제 사진공모전 수상작전시

2018.12.11. - 12.25.

개막식 및 시상식  
2018.12.11. 화 2:00 PM

주제전  
아시아문화원류 아카이브사진전  
[아시아-in]

특별초대전  
임종진 복원사진전  
“사는 거 다 똑같دي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메이커스페이스  
커뮤니티라운지

주최/주관 (사)아시아문화, (주)아는컴퍼니 후원 아시아문화원  
Asia Culture Institute